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비전성명

라오스 비엔티엔, 2005년 7월 28일

개발과 빈곤 근절은 국제적으로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는 가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증대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으며, 아울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델리 선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을 고려함에 있어 개발 의제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가별로 각각 다른 부존자원, 지속가능개발 및 에너지전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다. 기존의 양자간·다자간 구상의 기반에 근거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에너지수요증가 문제 및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집약도 등 관련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원칙에 부합하도록 각국의 국가적 상황에 따라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 사용, 이전하고 개별국가의 오염감축,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적, 국가적 상황에 맞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존 및 새로운 비용·효과적인 청정기술 및 방식의 개발, 확산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데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에너지 효율, 청정석탄, 통합가스화사업, 액화천연가스, 탄소포집 및 저장, 농촌에너지시스템, 첨단운송, 건물 건축 및 운영, 바이오에너지, 농업 및 임업 수력, 풍력, 태양력, 기타 재생에너지 등.

이 파트너십은 경제발전을 증진하면서도 대기중의 온실가스집약도의 현저한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변환에너지기술의 개발, 확산, 이행을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 협력의 분야는 아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수소, 나노테크놀로지,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 차세대핵분열, 융합에너지.

이 파트너십은 국가단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경제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감소하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은 합의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공유된
비전의 구성요소들과 이행방법, 수단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는 기후 및 재정체제 문제, 동 파트너십에 관심있는 국가와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의 가입 등을 포함하여 파트너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려할 예정이다.

파트너십은 또한 협력노력 강화를 위해 참가국들이 인적·제도적
능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민간분야 참여를 위해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검토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의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고
이에 기여할 것이며,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나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